

지역민들과 문화예술 향유... 함께 간직한 낭만과 추억

전남문화재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2> '시민들과 함께한 여름의 끝자락'

보성 '득량역 굿바이 씬머!'·신안 '퍼플섬 문화트래킹 섬술랭' 등 흥미
나주 '한 여름밤의 공연 여행'·'섬진강이 품은 문화레저파크' 시민과 함께

문화 소외지대에 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로컬자원과 개성 있는 테마를 접목한 전남문화재단의 '문화요일, 섬요일'이 호평을 받고 있다.

(재)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은 올해 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포함한 주간마다 '구석구석 문화배달-문화요일, 섬요일' 행사를 도내 13개 지역에서 펼친다. 이번 달에는 오는 25일(영광), 26일(무안·강진), 27일(곡성)을 비롯해 28일(장성·보성 등), 29일(장흥·해남)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얼마 전 성료한 8월 행사에 대한 반응도 긍정적인 평이 잇따랐다.

지난 31일 보성 득량면 문화복지센터는 '득량역 굿바이 씬머!'라는 주제로 여름과 가을 테마의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추억의 교복을 입고 옛 추억이 깃든 거리를 거닐거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흥미로운 행사였다.

같은 날 보성군 관소리성지(영천리 737)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상설 락(樂)' 행사도 불거렸었다. 판소리 '춘향가'를 비롯해 국악가요 '장타령', '새타령', 태평소와 설장구놀이 및 아리랑 연극 등 전통의 신명이 공연장을 수놓았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주를 이뤘던 '고흥 아트 바캉스'는 '영화가 있는 밤'이라는 주제로 31일 고흥군민광장에서 진행됐다.

여름밤 음악과 영화와 함께하는 '뫼자리 영화제'를 테마로 진행한 행사장에는 무더위를 식히려는 이들이 뫼자리를 깔고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하기 공룡 돌리: 얼음별의 대모험' 상영 외에도 보물찾기(별자리찾기) 및 LED 반딧불이·나만의 팝콘통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관객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이 어우러져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이외 아로마 별레 기피제 만들기나 밀짚모자 꾸미기 등 체험 대상자의 연령대와 시공간을 고려한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같은 날 마술, 난타, 색소폰 등 공연예술의 향연은 나주 빛가람호수공원 일대를 수놓았다. 마술사 테디의 '마술과 버블쇼'로 막을 연 행사 주제는 '한 여름밤의 공연 여행'. '세로니아'의 난타 레퍼토리, 전자색소포니스트 포에버의 공연을 비롯해 실로양 상블의 '클래식 앙상블', 해금·대금 등 퓨전국악의 선율도 울려 퍼졌다.

재단 최상희 담당자는 "계절과 날씨를 고려해서 공연 시간을 조정하는 등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넓은 공



전남문화재단이 연말까지 도내 13개 지역에서 '문화요일, 섬요일' 행사를 펼치고 있다. 행사 일환으로 지난달 31일 고흥군민광장에서 열린 '고흥 아트 바캉스' 프로그램. <전남문화재단 제공>

간과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킹 형태 공연, 영화관람 등을 진행해 만족도가 높았다"고 했다.

같은 날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에서는 '퍼플섬 문화트래킹 섬술랭' 행사도 진행됐다. '다이브 in 페인팅'이라는 테마에 맞춰 야간 조명을 개장했으며, '퍼플호' 선상에서 펼쳐진 디너쇼는 한여름 밤 낭만을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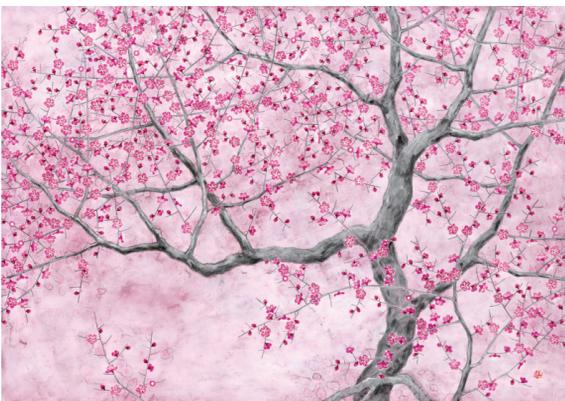
장성군 축령산 편백숲에서 열린 '축령산의 섬요일'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와 쉼을 만끽하는 자리였다. 작가 하림과 함께하는 북토크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가 열려 눈길

을 끌었다. 또 숲속 풍경화 그리기, 힐링 산책, 요가(강사 안유선)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완도군은 완도항 제1부두에서 '해신-장보고'라는 테마로 로컬 자원을 활용한 뮤지컬, 노 젓기 체험을 선보였다. 구례군은 이전 행사와 마찬가지로 '섬진강이 품은 문화레저파크'를 통해 청춘 버스킹, 아트 피크닉(만다라의 꿈), 생활예술장터 및 카약, 아트소반 등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지난 1일 영광을 끝으로 8월 문화요일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번 달부터는 해남 출신으로 문화동네 소

설상 수상작가 출신인 황영정 소설가가 각 지역 현장을 답사한 뒤,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9월 둘째 주부터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칠 부능선을 넘어선 문화요일 사업이 음악, 영화, 미술 등 여러 장르를 아우르며 전국 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지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해 지역민과 '문화 성장'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홍매, 비스듬히 기대다'



'청매, 비스듬히 기대다'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기릴 때가 있다. 더러는 누군가가 내게 기릴 때도 있다. 삶이 힘겨울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깨를 빌려주기도 한다.

'꽃, 비스듬히 기대다'를 주제로 전시 중인 장용림 작가의 작품은 '비스듬히'라는 부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몸을 기울게 하는 것을 '비스듬히'라고 한다. 나보다는 타자에 방점을 두거나 이편의 약함을 드러내는 행위의 방식에서 '비스듬히'는 필수불가결하다. '비스듬히' 자세를 취할 때 비로서 스스로를 낮추게 된다. 낮추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탐심이나 탐욕도 사라지게 된다.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 1, 2전시실(오는 24일까지)에서 진행 중인 장 작가의 전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진정한 낮춤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낮춤의 전제는 무엇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인지 깊이 숙고하게 한다. 특히 '비스듬히'라는 어휘가 주는 무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다.

'꽃, 비스듬히 기대다'

장용림 전, 24일까지 드영미술관

11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전통채색화 기법으로 구현한 31점의 평면(회화) 작품들로 구성됐다. 20년 기간 모두 11번째 전시를 열어오는 동안 작가는 수많은 매화를 보았다.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서 매화는 감성과 창작의 열정을 지피는 기제가 기도 했다.

장 작가는 작가노트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해오는 순간 속에서 비스듬히 기대는 것들이 많았다. 아 니 기대며 살아왔다고 믿었다. 그림의 소재가 되었

던 꽃들과 숨과 바람들... 그 모든 순간들이 그러했다"며 "그런데 어쩌면 나 또한 그림 속 소재들에게 어깨를 내어주고 마음 한 칸을 비워주며 받쳐주었던 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홍매, 비스듬히 기대다'와 '청매, 비스듬히 기대다' 두 작품은 '비스듬히'라는 공통의 부사가 지닌 의미를 매개로 풀어냈다. 홍매의 빛은 내면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현하지만, 청매의 빛은 외부의 기운을 안으로 수렴케 한다. 또한 홍매는 화사하면서도 아슬한 꽃빛처럼 허공으로 날리는 향인데 반해, 청매는 맑으면서도 수수한 빛을 머금은 향의 기운이다.

김도영 관장은 "지난 2004년 첫 번째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20년을 맞은 장 작가는 그동안 우리 산하의 아름다운 빛을 주요 소재로 창작활동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비스듬히'라는 말의 의미와 함께 수수하면서도 고운 빛깔의 작품이 선사하는 위안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인이자 감독 '요나스 메카스' 유작 스크린에

광주영화영상인연대, 19일 광주독립영화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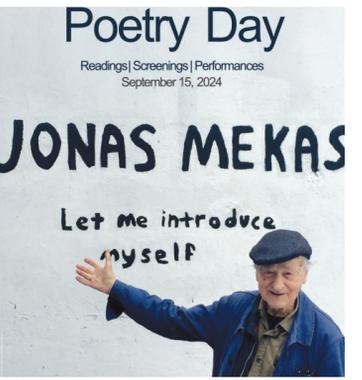
리투아니아 출신의 시인이자 영화감독인 요나스 메카스(1922~2019)는 생전 아방가르드 예술을 통해 자신의 예술관을 펼쳤다. 영화 전성기인 20세기에 실험 영화와 미디어아트를 개척하며 그 이름을 알렸다.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이사장 이상훈)는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개최를 기념해 '요나스 메카스 시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오후 6시 30분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진행한다. 요나스의 유작 영화 '레퀴엠'과 현정시 등을 만나는 자리다. 광주독립영화관과 파리 퐁피두센터가 주관하고 리투아니아 국립 오페라, 요나스 메카스 센터, 일본 도쿄 리투아니아 대사관 등이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다. 국내에서는 서울아트시네마 공동 진행.

요나스는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펼쳐진 탄생 100주년 기념전 '요나스 메카스+백남준: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로 지역에 이름을 알렸다. 미국 최초의 영화평론지 '필름 컬처'의 편집장을 역임했으며, 뉴욕의 대안신문 '빌리지 보이스' 등에 영화비평을 연재한 인물이다.

2019년 개봉한 '레퀴엠'은 '요나스 메카스의 가장 사적인 작품인 동시에 20~21세기에 관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이자 논평'이라는 평을 받는 작품이다.

마치 아름다운 지구에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지난 30여 년 동안 그가 기록한 꽃, 동식물 등 자연의 이미지들 스크린 위에 아카이빙하는 내용이



'요나스 메카스 시의 날' 행사 포스터.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다. 이외 이서영 시인의 현정 시 낭독 시간도 마련된다.

이상훈 이사장은 "요나스 메카스의 작품을 감상하는 이번 자리는 OTT 플랫폼과 유튜브가 지배적인 현대 영화의 지평에 반항을 일으키는 행사"라며 "시와 영화에 대한 요나스의 사랑, 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을 보며 문화적 감수성을 충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관람료 1만 원, 디트리스트 등 예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융·복합 미디어아트 전문가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11월 25일~12월 1일

융·복합 미디어아트 전문가의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내외 융·복합 미디어아트 관련 창작자·기획자를 대상으로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V'를 연다.

이번 워크숍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융·복합 미디어 아트'를 주제로 운영한다. 워크숍은 아시아의 젊은 창작자와 기획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융·복합 미디어 아트 콘텐츠 제작 사례와 현장 경험을 제공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공연·전시 콘텐츠 전문기관인 ACC와 디스트릭트(district),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빛고를 광주를 상징하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미디어

아트플랫폼 등 현장 방문과 전문가 강의 및 토론으로 구성돼 있다.

'2024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IV'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필수 제출 서류와 함께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오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심사(서류)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여자의 참가 지원비는 국제박물관협회 기준에 따라 국가별 전액 혹은 일부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참조)

한편 ACC는 지난 2022년부터 'ACC 글로벌 전문인력 워크숍' 시리즈를 통해 국내외 각 분야의 장·제작 전문가에게 필요한 역량과 국제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영국 빅토리아앤드앨버트 박물관(V&A)과 박물관·미술관 교육 분야, 대만 국립가오슝아트센터와 공연예술분야, 홍콩 엠플러스(M+)와 시각예술분야 등과 연계한 워크숍을 운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첼리스트 오지희 '가을을 그리다'

19일 광주예술의전당

9세에 첼로에 입문한 첼리스트 오지희는 호남예술제, 한·독 브람스협회 주니어콩쿠르 등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왔다. 오스트라이 빈 시립음대에서 예비과, 학·석사과정을 마쳤으며 우크라이나 방송교향악단 단원 등으로 활동했다.

첼리스트 오지희가 리사이틀 'Herbstbilder: 가을을 그리다'를 오는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로베르트·카밀로 슈만, 멘델스존의 로망스와 소품곡으로 낭만을 만끽하는 자리다.

로베르트 슈만의 '3개의 로망스 Op.94'로 막을 연다. 1849년 작품으로 오보에와 피아노 원곡이

나, 첼로와 바이올린 및 클라리넷으로 자주 연주되며 아내 클라라를 향한 슈만의 사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이어 '5개의 민요풍 소품, Op.102'가 울려 퍼진다.

'무언가 Op.109'는 멘델스존이 그의 첼리스트 친구인 안드레아 그라바우에게 헌정한 곡이다. 재미있는 리듬과 악센트를 활용해 민요들이 가지고 있는 생동감과 정열을 드러낸다.

끝으로 카밀로 슈만의 '첼로 소나타 1번 사단조, Op.59'가 관객들을 만난다. 슈만은 1920세기 전환기를 대표하는 오르간의 거장이었으며, 작곡가로써 실내악 장르에서 이름을 알렸다.

오지희는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했으며 ACC시민오케스



첼리스트 오지희

트라 강사로 출강,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선정 등 지역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및 빈 국립음대(가곡박주과·오페라코치)를 졸업한 피아니스트 김민주가 반주를 더한다.

오지희는 "19세기 독일 낭만시대의 꽃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과 벨릭스 멘델스존의 무언가, 후기 낭만의 작곡가 카밀로 슈만의 첼로 소나타 1번을 연주하는 독주회를 펼친다"며 "관객들께서 가을에 어울리는 선율로 가득 채운 공연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시 초대(예약 필수)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